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

이 종 옥*

차 례

1. 머리말
2. 수(水)의 의미
3.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
 - 1) '생명성 저장'의 이미지
 - 2) '기다림'의 이미지
4. 결 론

국문초록

본고는 동양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된 계기는 정지용 시의 특징을 해명하기 위한 각축이 「바다」 시편을 통해 개진되었다할 만큼 중요함에도, 서구적 이론에 편중되어 동양사상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지용이 술회한 바처럼 모더니즘시의 탄생 과정에서 예술보다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면, 그의 모더니즘 시의 의의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학작품은 작가가 태어난 사회의 산물이다. 이

* 대구대학교 강사.

에 본고는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를 작가가 태어난 사회의 문화, 전통, 사상에 깊숙이 내재된 음양오행(陰陽五行論)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음양오행(陰陽五行)적인 관점은 감정의 절제를 지향하는 동양화론적인 예술론이나 ‘안으로는 熱히되 밖으로 서늘하옵기’ 등 정지용의 시론에 충실한 것이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서구적인 관점에 입각한 논의가 신선한 감각과 회화적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면 동양적인 사상에 입각한 논의는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작가의 내면세계 즉, 사상을 잘 보여 준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그의 내면세계에 있는 존재론적 고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바다」 연작시에 대한 논의 결과,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의 핵심은 ‘음지(陰地)가 양지(陽地)되고 양지(陽地)가 음지(陰地)된다’는 것이다. 이는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기본원리이며 수(水)의 순환성이다. 여기에 기대어 시인이 말하고자하는 것은 ‘바다’에 나타난 ‘생명성 저장’의 이미지나 ‘기다림’의 이미지에 내포된 소생 가능성 즉 희망이었다.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연작시를 관통하는 주제인 생명소생, 즉 희망을 부각시킴으로써 소묘적인 회화성 속에 내재된 정지용의 현실인식 혹은 현실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바다」 연작시에서 화자의 시선이 줄곧 내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만해, 상화, 육사처럼 강렬한 현실인식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생명 소생의 필연성을 통하여 희망을 암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존재론적 고뇌의 과정한 가운데 펼쳐진 것으로 존재의 안온함이 필연적 귀결이다. 이는 정지용의 내면세계가 지향하는 바는 존재론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수(水)의 상상력은 후기 ‘산시편’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바다’에서 ‘산’으로 공간은 이동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수(水)의 상상력, 음양오행, 생명성 저장, 기다림, 생명소생.

1. 머리말

정지용은 영문학을 전공하고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하였지만 동양 사상에 특별한 관심¹⁾을 피력하였던 시인이다. 동양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전기나 산문 등에 잘 나타나 있다.²⁾ 언어와 함께 전통사상을 중요시 한 정지용의 시정신은 동양사상에 연관³⁾되어 있다. 정지용 시의 특징은 감정이 시에 노출되는 것을 엄격히 절제한 언어구사 방식인데 이는 동양적인 미학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정지용의 '산수시'에서 보여주는 고요의 공간을 동양사상적인 맥락에서 논의하였다.⁴⁾

'산수시'가 많은 후기와 달리 전기에는 '바다의 시인'⁵⁾이라 불릴 만큼 정지용은 '바다'를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다.⁶⁾ 『정지용 시집』 서두에 「바다1」과 「바다2」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바다'에 대한 그의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 「甲板우」, 「선박1」, 「갈매기」, 「겨울」, 「地圖」, 「다시해협」, 「말1」, 「말3」처럼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도 많지만 「바다1」, 「바다 2」, 「바다3」, 「바다4」, 「바다5」, 「바다6」, 「바다7」, 「바다8」, 「바다9」처럼 '바

1) 박혜숙, 『한국 현대시 흐름의 양면 탐구』, 국학자료원, 2001, 52쪽. 정지용이 추천 위원으로 있던 『문장』지는 창간호부터 제작방향으로 삼을 정도로 고전 탐구열이 뜨거웠다.

2) 정지용은 어린 시절부터 한시를 창작했고 그의 시론이나 산문은 물론, 교단에서도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3) 최승호, 「정지용 자연시의 은유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제1호, 1998, 382쪽.

4) 오탁번, 『현대문학산고』, 고려대 출판부, 1976, 120쪽.

권정우, 「정지용의 바다시편과 산시편의 연속성 연구」, 『비교한국학』12, 2004, 98쪽.

5) 오탁번, 「지용시의 소재」, 『현대문학산고』, 고려대출판부, 1976, 121쪽.

6) 백운복, 「정지용의 '바다' 시 연구」, 『서강어문』 5, 1985, 219쪽.

이길연, 「정지용의 바다 시편에 나타난 기하학적 상상력」, 『우리어문연구』25집, 2005, 199쪽.

오탁번, 『현대문학산고』, 고려대출판부, 1976, 120쪽. 오탁번은 정지용 시의 소재를 바다, 산, 도회, 향촌, 신앙으로 나누고 다섯 가지 중에서 바다와 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를 제목으로 하는 연작시가 많다.

정지용 시의 특징을 해명하기 위한 각축이 「바다」 시편을 통해서 개진 되었다고 할 만큼 그의 시에서 「바다」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시작(詩作)의 출발부터 서구와 전통을 병행했던 시인⁷⁾이었지만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는 서구 사상이나 이론에만 편중되어 동양사상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학작품은 작가가 태어난 사회의 산물이다. 이제 「바다」 시편도 작가가 태어난 사회의 문화, 전통, 사상 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를 작가가 태어난 사회의 문화, 전통, 사상 등에 깊숙이 자리한 음양오행(陰陽五行論)⁸⁾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동양사상의 토대를 형성하는 음양오행(陰陽五行)적⁹⁾ 사유방식은 우주 자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나 인간사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체계이다. 따라서 예술, 학문, 철학은 물론, 인간의 운명이나 건강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동양인에게 있어 음양오행 사상은 특별한 지위나 신분, 지식,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생활철학¹⁰⁾이다. 유년시절부터 한약방¹¹⁾을 하셨던 아버지와 밤 새워 담론하던

7) 박혜숙은 정지용의 초기시는 「슬픈인상화」, 「카페프란스」, 「파충류동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조나 민요풍의 동요며 시작(詩作)의 출발부터 서구와 전통을 병행했던 시인이라고 하였다. 위의 책, 145쪽.

8) 음양오행의 기원이나 형성과정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문헌상으로는 『서경(書經)』, 『예기(禮記)』, 『주역(周易)』 등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음양오행 뒤에는 ~원리, ~론, ~설, ~사상 등의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9) 한국적 우주관의 근원을 이루며 우리 민족의 사상적 원형의 바탕을 이루는 음양오행 사상은 오행(五行) 즉,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움직임으로 우주와 인간생활의 모든 현상과 생성소멸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생활사적으로는 관혼상제나, 민속·의복·주거·제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문적으로도 인문지리인 동시에 자연과학이며 철학으로서 서양 학문이 가지고 있는 분리적 성격을 극복하는 통합 학문이다. 고분의 벽화, 비석의 귀부(龜趺)·오경박사(五經博士)·역박사(易博士)·감은사지의 태극도형에서 볼 수 있듯 음양오행사상은 한국인의 정신과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해 있다.

10) 음양오행론은 의복,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관혼상제, 제례 등에도 지대

정지용에게 어린 시절부터 체득되었던 것이다.¹²⁾

그렇다면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를 분석하는데 음양오행적(陰陽五行的) 관점은 왜 효과적인가? 한글의 제자원리를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문학 분야에도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입각하여 논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¹³⁾ 정지용의 시 「향수」와 그의 시에 나타난 ‘색채 관련 시어’에 대한¹⁴⁾ 논의가 있었으나 단편적 혹은 개별적인 것이었다. ‘동양화론(東洋畫論)에서 시의 방향(方向)을 찾는 이는 비뚤은 길에 들지 않는다’에서 동양화론이란 일단 음양오행에서 찾아 볼 수밖에 없게 한다.¹⁵⁾는 신진의 주장이나 ‘안으로는 熱하되 밖으로 서늘하옵기’처럼 수(水)의 본성을 닮은 시론을 볼 때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를 음양오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정지용의 시작론에 충실한 것이 된다. 감정의 절제를 지향하는 동양화론적 예술론¹⁶⁾으로 경진류의 탐독을 강조하던 정지용의 작품을 구

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문적으로도 인문지리인 동시에 자연과학 철학으로서 서양 학문이 가지는 분리적 성격을 극복하는 통합 학문이다. 이정재, 「陰陽五行論의 형성과 이의 응용연구」, 『한국문화연구』 제7집, 2003, 187쪽.

- 11) 한의학에서 음양오행 사상은 약제처방과 환자치료의 근본이다. 장동순, 「五行이론의 科學性」, 『의림』 262, 2000, 14쪽.
- 12) 4대 독자였던 정지용은 “나가서 얻어온 이야기를 닮아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던” 시인이었다. 정지용, 『정지용 전집 1, 시』, 『넋니약이 구절』, 민음사, 1997, 32쪽.
- 13) 드물기는 하나 현대문학에서도 음양오행에 근거하여 연구하고 있다. 김동환, 『김동리 소설의 상상력 연구 -음양오행사상의 시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9.
조선숙,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본 이상의 소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2.
- 14) 정효구, 「정지용의 시 「향수(鄉愁)」와 음의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제 19호, 2007, 239쪽.
신 진, 「정지용 시의 색채(色彩) 이미지 고찰-음양오행을 통한 원형연구시론-」,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6집, 1982, 21쪽.
- 15) 신 진, 「정지용 시의 색채(色彩) 이미지 고찰-음양오행을 통한 원형연구시론-」,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6집, 1982, 23쪽.

명하는 자리에 동양 사상을 배제한 논의는 그의 시작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주요 시어나 이미지에는 생명의 모체인 수(水)의 특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음양오행(陰陽五行)적 논의는 필연적이다. 음양오행적 관점으로 보면 「바다」는 그 자체가 ‘수(水)의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세계이자 상징이다.

이에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를 음양오행(陰陽五行)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본다면 「바다」 연작시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의 내면세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이 밝혀질 것이고 나아가 그의 「바다」 연작시를 좀 더 깊이 혹은 새로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전기시의 중심테마인 「바다」에 대한 사상적 기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다」시편과 「산시」편의 동양사상적 연속성 확인으로 정지용의 작품 전체에 숨은 사상적 맥락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수(水)의 의미

모든 생명이 물에서 잉태되고 물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다. 서구¹⁷⁾에서는 물, 불, 공기, 땅을 일러 4원소(元

16) 감정의 절제를 지향하는 그의 동양적 시학태도: “안으로 열(熱)하고 겉으로 서늘옹기” “동양화론에서 시의 방향을 찾는 이는 뼈뿔은 길에 들지 않는다.”, “고전적인 것을 진부로 속단하는 자는, 별안간 뛰어드는 野蠻일 뿐이다.” 정지용, 『정지용전집 2, 산문』, 「시의 옹호」, 민음사, 2010, 320~321쪽.

17) 「바다」를 서구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때는 주로 원형비평계에서 유행하던 가스통 바슐라르의 4원소론이 인용된다. 이승훈은 지용시의 상상력은 불과 물의 이미지 대립과 혼용단계(초기시), 물의 이미지에의 지향단계(초기시의 심화된 경우), 그리고 신앙시에 이르러 물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불을 갈망하는 단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 단계의 불은 하늘의 세계를 지향하는 영혼의 불이요, 시인의 내면세계에서 피어오르는 일종의 주관적인 불이며, 육신의 온갖 괴로움이 승화되는 정신적 승리를 표상하는 불이요, 혹은 하느님의

素)¹⁸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을 일러 사대(四大)라 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는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일러 오행(五行)이라 한다. 이들은 인식 원리의 단면이 조금씩 다르¹⁹지만 수(水)가 만물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목(木), 화(火), 토(土)²⁰, 금(金), 수(水) 다섯 가지 요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전(變轉)하는 것이다.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의하면 우주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수(水)의 순환에 의해 생성 혹은 변화한다.²¹ 모든 생명은 물에서 잉태되고 물에서 태어난다. 물이 없으면 생물이 발생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물(水)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 물은 겨울에는 땅속에 저장된 씨앗이나 뿌리에, 봄에는 나뭇가지에, 여름에는 잎에 숨는다. 음(陰)의 기운이 시작되는 가을이 오면 과일 혹은 씨앗에 숨었다가 겨울엔 다시 씨앗에 숨지만 물은 늘 순환하기 때문에 봄에 소생할 수 있게 해 준다. 겨울이 비록 길고 춥고 어둡지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봄은 온다. 이처럼 수(水)의 의미는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현재 어려움

사랑을 표상하는 불이라고 하였다. 이승훈, 「정지용 연구」, 『랍프의 시학』, 새문사, 1988, 125~1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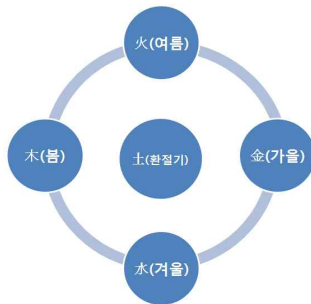
18) 철학자이며 시인인 가스통 바슐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보편적으로 지향하고자하는 이미지의 원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 원형을 향해 가는 정신적인 힘인 상상력은 끊임없이 사물을 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려는 관성을 갖는다. 물·불·공기·흙의 물질성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이 유형화된다는 바슐라르의 4원소론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물(物)에 대한 바슐라르의 생각이 뚜렷하게 잘 드러난 저서는 『물(水)과 꿈』이다.

19) 서구의 4원소, 불교의 사대, 음양오행사상의 오행은 산함(변화)과정에서 각각, 근원적, 대립적, 직선적, 순환적, 이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20) 양(陽)에서 음(陰)으로 바뀌기 전에 기운을 조절해서 전환해주는 중재자는 토인 데 음(陰)도 아니고 양(陽)도 아닌 중(中)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토(土)는 안정적인 흙의 형상이며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변할 때 일어나는 모순을 조절하고 조화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21)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2001, 58쪽.

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오행(五行)은 아래의 <그림1>처럼 늘 순환한다. 오행을 분류하면 <그림2>처럼 목(木)과 화(火)는 양(陽)의 기운을, 금(金)과 수(水)는 음(陰)의 기운을 가지는데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음극즉양생(陰極卽陽生), 양극즉음생(陽極卽陰生)의 원리에 따라 순환하며 성장(발전)한다.



<그림 1>

陰陽	陽		中	陰	
삼재	天		人	地	
모음	ㄱ, ㅋ, ㆁ, ㄷ, ㅌ, ㄴ		ㅣ	ㄴ, ㄷ, ㄹ, ㄹ, ㅈ, ㅊ, ㅊ, ㅊ, ㅊ, ㅊ	
五行	木	火	土	金	水
방위	東	南	中央	西	北
계절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자음	ㄱ, ㅋ	ㄴ, ㄷ, ㄹ	ㅇ, ㅎ	ㅅ, ㅈ, ㅊ	ㅁ, ㅂ, ㅍ
색상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모양	새싹	개화	전환	열매	씨앗(생명성)
성질	발생,	절정	안정,	성숙	저장
성격	온화함 교육적	밝음 정렬적	정확함 신용적	의리 지도력	인내심, 내성적

<그림 2>

오행에서 수(水)는 생명 소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2>에 있는 수(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水)는 방위로는 북방을 의미하고 하루 중에서는 밤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

기에 그 기운은 차갑다. 비록 현 상태는 춥고, 어둡지만 생명성만 저장(씨앗)되어 있다면 소생할 수 있으므로 희망적이다. 그러므로 수(水)의 의미로 접근하면 차가운 ‘바다’는 음(陰)의 세계이지만 미래지향적이다. 수(水)의 의미는 ‘안으로는 熱하되 밖으로 서늘하옵기’라는 정지용의 시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수(水)는 한글에서 자음인 ㅁ, ㅂ, ㅍ을 의미한다. 「바다」 연작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래, 바다, 파도, 밤, 비, 바둑돌 등의 시어는 모두 ㅁ, ㅂ, ㅍ으로 시작된다. 수(水)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수(水)는 내성적 성격을 가진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양보하지만 늘 탐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그간의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정지용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

이 외에도 수(水)는 유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무엇이든 부드럽게 풀어내는 작용을 의미한다. 딱딱하게 응고된 것에 물을 첨가하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水)의 의미가 쉽게 이해된다.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면 딱딱하거나 긴장되기 쉬운 법규나 질서, 관습 등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상태는 어둡고, 추워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수(水)가 희망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음극즉양생(陰極卽陽生), 양극즉음생(陽極卽陰生)의 원리에 따라 순환·발전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수(水)의 상상력’이란 <그림2>처럼 수(水)는 음양(陰陽)으로 구분하면 음(陰)에 속하기 때문에 넓게는 음(陰)적인 것²²⁾을 말하며, 좁게는 오행 중에서 수(水)의 의미와 관련된 정신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는 같은 제목에 같은 번호가 붙어 있는 작품으

22) 음양(陰陽)은 태양이 비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누어 인식되고 있다. 1) 상대적으로 밝고, 높고, 따뜻하고, 즐겁고, 동적인 것은 양(陽)으로 어둡고, 낮고, 춥고, 외롭고, 정적인 것은 음(陰)으로 인식한다. 둘은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연구나 인식을 위해 설정해 놓은 개념일 뿐 실은 조화하는 관계이다. 明暗, 高低, 長短, 大小, 動靜, 強弱, 上下, 左右, 前後, 雌雄, 熱寒, 表裏, 開閉, 散合, 浮沈, 圓角, 燥濕 등에서 전자는 양(陽)이고 후자는 음(陰)이다. 그러므로 후자는 모두 수(水)의 상상력에 포함된다.

로 인하여 혼돈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 이에 본고는 김학동이 작품의 생산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 것에 의거하려고 한다.

3.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

정지용의 ‘바다’는 ‘근대 경험의 표상²³⁾ 혹은 근대적 공간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세밀히 살펴보면, 정지용은 모든 생명체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바다’를 동경하고 그리워²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지용의 「바다」시편들은 예외 없이 ‘바다’의 풍경을 적절한 구도로 담아냄으로써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된 한 폭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다의 풍경,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은유적 세계관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서 생산과 풍요의 원형적 상징인 수(水)는 생명체를 키워내는 영원한 자양의 원천이다. 정지용이 「바다」 연작시에서 펼친 상상력을 따르면 발견할 수 있는 ‘생명성 저장’의 이미지 혹은 ‘기다림’의 이미지는 수(水)의 본성이 의미화된 것이다. 이에 정지용의 「바다」시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때론 고요하게, 때론 거칠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 풍경 속에 생명성을 불어 넣은 수(水)의 상상력이다.

1) ‘생명성 저장’의 이미지

오·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가니
오·오·오·오·오 연달아서 몰아온다.

간밤에 잠 살포시

23) 유종호, 「시는언어로빛는다」, 『문학의즐거움』, 민음사, 1995, 128~129쪽.

24) 오세영, 『문학연구방법론』, 이우출판사, 1988, 68쪽.

머언 뇌성이 울리더니

오늘 아침 바다는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철석, 치열석, 철석, 치열석, 철석,
체비 날어 들듯 물결 새이새이로 춤을 추어

- 「바다 1」 전문 -

모든 생명체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지향하지만 어둡고 축고 힘든 현실에 눌러 살기 때문에 소생을 꿈꾸며 움직이고자 한다. 그것이 삶이다. 정지용이 바닷물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들은 바닷물의 움직임이 시각적 체험을 넘어 상상력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모하는데 「바다1」 역시 그러하다. 위의 시를 자세히 읽어 보면 '바다'는 화자가 실제로 위치한 처소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터전²⁵⁾이다. 먼저 1연을 보면, 동일 음운이 반복되는 '오·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가니'에서 화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시각적 혹은 청각적 체험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있다. 화자의 상상력은 소리치며 달려가고 연달아서 몰려오는 파도의 움직임을 의인화함으로써 '바다'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생명체로서의 바다를 느끼게 한다.'²⁶⁾ 화자의 공감각적인 체험 역시 바닷물의 움직임을 이미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내재된 생명성 저장(잉태)의 이미지를 감각화하기 위한 것이다. 파도의 움직임을 따라 쫓는 화자의 행위를 대상에 밀착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교감을 통하여 '광활한 공간인 '바다' 속에 숨어 있는 생명력의 충만함'²⁷⁾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25) 김종태, 「정지용시의 공간과 죽음」, 월인, 2002, 78쪽.

26) 이정은, 「정지용시의 이미지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8쪽.

27) 김 훈, 「정지용 시의 분석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64쪽.

제2연에서 핵심 시어인 ‘밤’은 어둠의 현존이요 빛의 부재이므로 죽음이나 혼돈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水)의 의미로 접근하면 대부분의 동, 식물들은 밤에 휴식함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생명을 창조한다. 때문에 ‘밤’은 존재의 부재 혹은 존재의 무화가 아니라 실존의 은유이자 창조이다. 이는 수(水)의 상상력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낮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밤에 휴식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원리이다. 에너지 충전이나 생명 창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생명창조는 하늘에서 허락해야 하는 것이다. 2연에서 ‘간밤의 뇌성’은 하늘의 허락을 받은 생명의 창조를 짐작케 하는 것으로 제3연에서 ‘포도빛 바다’를 탄생시키기 위한 통과 제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포도빛이란 혈액의 색깔이므로 생명창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특히 ‘부풀어졌다’는 서술어는 임신한 여인의 배를 상기시킴²⁸⁾으로써 생명성 저장(잉태)의 이미지를 환기해 주고 있다. 이처럼 화자의 상상력은 뇌성이 울린 후, 아침바다를 만나는 의미 구조를 통하여 바다에 생명성을 불어 넣는다. 화자는 불어 넣은 생명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라고 함으로써 생명성 저장(잉태)의 이미지를 감각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연에서는 제비가 춤추듯 생동하는 파도의 움직임을 통하여 잉태된 생명체의 건강함을 감각화하였다.

이상으로 「바다1」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생명성 저장의 이미지를 통하여 소생 가능성, 즉 희망을 암시하고 싶었던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면 바다에 생명성을 불어넣으려는 다른 작품을 보도록 하자.

바다는
푸르오.
모래는 희오, 희오.

28) 강현국, 「현대시에 나타난 바다 연구-정지용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4집, 1983년, 137쪽.

수평선 우에
살포-시 내려안는
정오 한올
한 가운데 도라가는 태양
내 영혼도
이제
고요히 고요히 눈물겨운 백금팽이를 돌니오.

- 「바다 7」의 전문 -

위의 시 「바다7」 역시 표면적으로는 정오의 햇살이 내리쬐는 조용한 바다의 풍경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밝은 햇빛이 가득한 정오라는 시간, 흰 모래가 펼쳐진 바닷가, 저 멀리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듯한 수평선까지 생각하면 안온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다. 그런데 화자는 왜 8, 9, 10행에서 내 영혼은 눈물겹게 백금팽이를 돌린다는 것인가? 이는 「바다7」 역시 단순히 ‘바다’를 회화적으로 이미지화하거나 ‘바다’의 이미지를 감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의 풍경 이면에 내재된 의미는 무엇일까? 화자에게 눈물겨운 소망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수(水)의 상상력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진다. 음양오행(陰陽五行)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바다’이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만으로는 생명을 창조하지 못한다.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서 만물은 수(水), 화(火)로 창조된다²⁹⁾고 한다. 생명성 유지에 필수요건은 물(水)이지만 생명 발생의 필수요건은 따뜻함인 화(火)이다. ‘바다’는 수(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질이고 ‘태양’은 화(火)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위의 시처럼 ‘정오 하늘 한 가운데 돌아가는 태양’이라면 바닷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수(水) + 화(火)는 생명 창조,

29) 崔炳柱, 『음양오행의 원리』, 資文閣, 1993, 27쪽.

즉 잉태의 필수조건이다. {(바다(水)=陰) + (태양(火)=陽)} = 음양 조화로 도식화되는 수(水)의 상상력으로 살펴보면 화자가 백금팽이를 눈물겹게 돌리는 이유를 알게 된다.

위의 시 「바다7」은 화자가 관찰 가능한 ‘바다’의 풍경 + 화자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비연시다. 첫 부분인 1, 2, 3행은 화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을 묘사하려는 듯 시작하지만 4, 5, 6, 7, 8, 9, 10행은 화자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것이다. 화자의 상상력은 바다(水)+태양(火)=생명성 저장(잉태)의 이미지로 귀결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4, 5, 6, 7행이다. 화자의 상상력은 표면적인 바다의 풍경 이면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음(陰)·양(陽)의 조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법이다. 여기서 ‘태양’이 ‘바다’에 생명성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원형적 상징이 된 것은 만물은 수(水), 화(火)로 창조된다는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음양오행(陰陽五行)적인 관점에서 보면 4, 5, 6, 7행은 남성 이미지인 하늘의 ‘태양’이 여성 이미지인 ‘바다’에 생명성을 불어 넣기 위한 성적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늘’은 부성(父性)의 원형이고 ‘바다’는 모성(母性)의 원형이다. 남성이미지인 ‘태양’이 여성 이미지인 ‘바다’에 내려앉으면 생명성이 저장(잉태) 된다.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맞닿는 곳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 이는 수(水)의 상상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 부분인 8, 9, 10행은 ‘바다’에 생명성을 불어넣기 위해 치열하게 고뇌하는 시인의 내면세계의 현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런 운동없이 여자와 남자가 그저 닿기만 하면 잉태되는 것이 아니듯 태양과 바다도 마찬가지다. 화자가 백금팽이를 돌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다’에 생명성을 불어 넣으려면 성적행위자인 태양의 운동이 요구된다. 생명성 저장(잉태)을 위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 눈물겹도록 백금팽이를 돌리게 한 것이다. 이것이 어떤 구호나 표어, 웅변보다 시가 더 아름다운(감동적인) 이유이다. 이처럼 수(水) 상상력은 현실극복을 위한 시인의 고뇌를

감동적으로 현현하도록 도와준다. 흔히 10은 완성의 수라고 하는데 후천수로 구분하면 수(水)의 숫자이다. ‘태양’과 ‘바다’를 맞닿게 한 것이나 10행으로 마무리한 것에서는 생명성 저장(잉태)에 대한 구도적인 자세마저 느껴진다. 하늘을 비추고 있는 평면성의 수평선에 눈물겨운 백금팽이를 돌리는 수(水)의 상상력은 ‘구도적 정신성의 자세로 상승’³⁰⁾한다.

이상으로 「바다7」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성행위를 상징하는 바다와 태양을 통하여 생명성 저장(잉태)의 이미지를 감각화함으로써 국운 혹은 기타 모든 운의 소생가능성 즉, 희망을 암시하였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잉태되는 순간, 바로 탄생하는 생명체는 없다. 기쁨의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루하지만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주 자연의 섭리이다.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저장(잉태)된 생명체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루하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2) ‘기다림’의 이미지

오행 중에서도 수(水)의 상태는 긴장되고 어둡고 축고 암울하여 죽은 듯 낡작 엷드려 살아야 하는 일제강점기의 사회적 분위기와 유사하다. 어둠에 혹은 흑한에 얼어 죽은 듯 보이는 동, 식물들도 아침이나 봄에 다시 소생하는 이유는 생명성마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에 의지하면 현재 처해진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정지용의 「바다」 연작사에서 기다림의 이미지가 잘 드러난 시를 보도록 하자.

한 백년 진흙 속에
숨었다 나온 듯이

30) 박정석, 「정지용 시의 공간의식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59쪽.

게처럼 옆으로
기여가 보니

머언 푸른 하늘 알로
가이 없는 모래 받.

- 「바다2」 전문 -

정지용은 다른 시인들이 감정이 분출하는 시를 쓰던 1920년대부터 절제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동양화론(東洋畫論)적인 여백의미를 살리는 시를 썼다. 「바다2」와 「바다3」은 특히 그러하다.

외로움은 정지용의 초기시를 지배하는 정조이다. 이러한 정조는 「바다2」와 「바다3」에서 두드러지는데 두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로움의 정조 이면에는 기다림의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작품을 지배하는 분위기인 ‘외로움’, ‘기다림’, ‘인내심’, ‘고요함’, ‘지루함’ 등은 음양오행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수(水)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는 수(水)의 특성인 유연성 혹은 유장함을 엿 볼 수 있다. 유연성이란 연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고 유장함이란 속을 안 내보이고 여유롭게 흐르는 평화로움을 의미하므로 무욕의 상태에서 기다림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하는 것들이다. 이는 정지용의 ‘산시편’에서 보여지는 고요 혹은 무욕과 닮았다.

위의 시 「바다2」 역시 표면적으로는 고요하고 편안한 바다의 풍경을 노래한 듯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존재론적 고뇌의 깊이가 간단치 않다. 이 시에는 우주적 상상력³¹⁾이 드러나므로 우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체계인 음양오행론적 접근이 요구된다. 위의 시에서 기다림의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시어는 ‘한백년’과 ‘계’이다. 기다림의 이미지가 특히 강렬한 시어는 ‘한 백년’이다. ‘한백년’

31) 허치범, 「정지용과 김기림의 ‘바다’ 시 비교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5쪽.

은 사전적으로는 물리적 시간의 길이 혹은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위의 시에서는 지루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지만 괴롭고 힘든 시간은 느리다 못해 멈춘 듯하다.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그러하다. '바다'에 저장된 생명체는 10달만 기다리면 태어나는 인간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만일 국권이나 국운의 소생처럼 거대한 생명체가 성숙되려면 '한백년' 정도는 꼭 기다려야 될 것이다.

위의 시에서 주요 시적 대상인 '계'는 죽은 듯 납작 엎드려 살아야 하는 시인의 처지나 심리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시인이 '계'를 시적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계'의 삶이나 처지가 자신과 동일함을 현현하기 위한 것이다. 진흙 속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계'는 시인이 처한 처소적 공간이 그리 편하지 않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늘 납작 엎드려 살아야만 하는 것은 시인의 심리 상태나 행동을 비유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그것도 기어서 가야 하는 것 역시 현재 시인이 처한 심리 상태나 행동을 비유하는 것이다. '계'를 통하여 짐작되는 화자의 존재론적 고통이 이다지 큼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나, 포기, 좌절 혹은 죽음의 바다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水)의 상상력 덕분이다.

이상 「바다2」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계'와 '한백년'이라는 시어로 드러나는 기다림의 이미지를 통하여 외롭고, 괴롭고, 지루함을 보여 줌으로써 화자가 겪는 존재론적 고통의 깊이를 기능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바다2」는 수(水)의 상상력 덕분에 회화적인 바다의 이미지와 더불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감각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다림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시를 한편 더 보도록 하자.

외로운 마음이
한종일 두고

바다를 불러——

바다 우로
밤이
걸어 온다.

- 「바다 3」 전문 -

기다림의 이미지는 「바다2」와 「바다3」의 공통된 정조이나 「바다3」에 서는 기다리기 지루해하는 화자의 심리상태가 두드러진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는 화자가 실제로 위치한 처소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터전³²⁾인 경우가 많았지만 위의 시는 특히 그러하다.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외롭고 지루하다. 화자는 외로운 기다림에 지쳤는지 한종일 바다를 불러 밤이 걸어온다. 위의 시는 시적 공간인 ‘바다’ 그 자체도 수(水)이지만 ‘바다’, ‘밤’은 자음 ㅂ으로 시작되었으니 수(水)의 글자이다. 밤도 수(水), 외로움도 수(水), 기다림도 수(水), 바다도 수(水)이다. 속성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배적인 이미지나 모두 수(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시에서 화자가 자유롭게 펼친 것은 수(水)의 상상력이다. 시인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게 한 수(水)의 의미는 작가와 독자에게 실존에 대한 불안의식 혹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인이 수(水)에 해당하는 시어나 정조를 집중적으로 불러 모은 데는 이유가 있다. ‘외로운 마음’, ‘속으로의 외침’, ‘밤’, ‘바다’, ‘기다림’, ‘어둠’ 등을 등식화해보면 극음(極陰)+극음(極陰)+극음(極陰)+극음(極陰)이다. 우주 자연의 모든 것은 음극즉양생(陰極卽陽生), 양극즉음생(陽極卽陰生)으로 순환 성장(발전)한다는 것이 음양오행사상의 원리이다. 음(陰)의 기운이 극(極)에 달하면 극즉반(極卽反)의 원리에 따라 양(陽)의 기운이 생기고 양(陽)의 기운이 극(極)에 달하면 음(陰)의 기운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바다3」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

32) 김종태, 「정지용시의 공간과 죽음」, 월인, 2002, 78쪽.

은 빨리 음극즉양생(陰極卽陽生)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시인의 바람을 현현한 것이다.

기다리는데 무엇이든지 한종일을 두고 부른다면 지칠만하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임신한 아내의 배에 대고 보고 싶으니 얼른 나와 달라고 불러도 때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제 만일 민족이 새로 탄생하는 국권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도 10달을 기다리는데 국권 소생처럼 거대한 생명체라면 포태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이치다. 화자도 그런 것을 알기에 한백년을 기다리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어쩔 수 없이 지루하고, 불편하고, 외롭다보니 지칠 수밖에 없다. 기다림에 지친 화자의 모습은 그의 다른 시, 「바다4」에서 좀 더 극렬하게 드러난다. 이는 「바다」 연작시들이 정지용이 식민지 지식 청년으로서 어느 한 곳에서도 존재론적 안식을 얻을 수 없던³³⁾ 우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창작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수(水)의 관점으로 보면 ‘바다’는 음(陰)의 세계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생의 희망을 암시해 준다. 그러므로 정지용의 ‘바다’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이다. 정지용은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수(水)의 순환원리로 정신적 상승을 꾀함으로써 실존의 자리를 찾아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수(水)의 순환원리에 따르면 물(水)은 항상 움직이기를 좋아한다. 물(水)이란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계곡물이든 항상 움직인다. 물(水)의 역동성이란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물(水)의 성질을 두고 한 말이다. 태동이 태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바다에 저장(잉태)된 생명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닷물의 움직임이다. 생명성의 성장과 생명의 소생을 위해서 바닷물(水)의 움직임은 필수이다. 바닷물의 움직임은 정지용의 「바다」

33) 남기혁, 「정지용 초기시의 ‘보는’ 주체와 시선(視線)의 문제 - 식민지적 근대와 시선의 계보학(2)-」,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6집, 2008, 166쪽.

연작시 전편에서 두루 나타난다. ‘바다는 뿔뿔이/ 달어 날라고 했다’처럼 바닷물의 움직임은 생동적으로 보여 준 「바다9」는 물론, 「바다5」, 「바다6」 등에도 바닷물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 있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바닷물의 움직임은 수(水)의 본성이 지니는 의미와 결합함으로써 생성력을 갖는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 전편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바다’를 상실과 소외 혹은 단핍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성의 저장(잉태)과 성장, 즉 미래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상으로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근대적 공간 속에서 마땅히 존재할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작자나 독자 모두에게 민족 운명의 소생 가능성, 즉 희망을 암시해 주었다. 그리고 회화적인 ‘바다’ 이미지 속에 은밀히 내재된 시인의 현실인식이나 나름대로 모색하였던 현실 대응 방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부정적인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

3.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동양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해 왔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의 핵심은 동양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음직한 ‘음지(陰地)가 양지(陽地)되고 양지(陽地)가 음지(陰地)된다’는 것이다. 이는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기본원리이며 수(水)의 순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지용은 현실인식과 존재의 모색을 위한 치열한 고뇌를 수(水)의 순환성에 기대어 보여주었다. 광복 후 정지용이 술회한 바처럼 모더니즘 시의 탄생 과정에서 예술보다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면 그의 모더니즘 시의 의의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지용의 동

양화론적인 예술론이나 '안으로는 熱하되 밖으로 서늘하옵기' 등의 시작론과 일맥상통하는 음양오행(陰陽五行)적인 관점은 그의 시론에 충실한 것이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서구적인 이론에 입각한 논의가 신선한 감각과 회화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면 동양적인 사상에 입각한 논의는 작가의 내면세계 즉, 사상을 보여 주었다.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회화적인 이미지나 근대의 낮은 풍경에 위축된 어둠의 이미지 대신 '생명성 저장'이나 '기다림'이라는 모성적 이미지를 통하여 외경심을 부여함으로써 '바다'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그의 내면세계에 내재한 존재론적 고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상으로 본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생명성 저장'의 이미지와 '기다림'의 이미지를 통하여 연작시를 관통하는 주제인 생명소생(희망)을 부각시킴으로써 회화적인 언어 속에 내재된 현실인식이나 현실극복을 위한 시인의 내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었다. 이는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를 해소하고 나아가 그의 「바다」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화자의 시선이 줄곧 내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만해, 상화, 육사처럼 현실인식을 밖으로 강렬히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생명 소생의 필연성을 통하여 희망을 암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은 존재론적 고뇌의 과정 한 가운데 펼쳐진 것으로 존재의 아름다움이 필연적 귀결이다. 이는 정지용의 내면세계가 지향하는 바이며 존재론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水)의 상상력은 후기 「산시편」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임도 보여주었다. 「바다」에서 「산」으로 공간은 이동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족하지만 본고의 「바다」 연작시에 대한 분석이 후기시와의 맥락을 시사하거나 정지용 시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정지용, 『정지용전집 1, 詩』, 민음사, 1997.
정지용, 『정지용전집 2, 산문』, 민음사, 2003.

2. 단행본

- 김종태, 『정지용시의 공간과 죽음』, 월인, 2002.
박혜숙, 『한국 현대시 흐름의 양면 탐구』, 국학자료원, 2001.
오세영, 『문학연구방법론』, 이우출판사, 1988.
오탁번, 『현대문학산고』, 고려대출판부, 1976.
최병주, 『음양오행의 원리』,資文閣, 1993.
한동석,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2001.

3. 논 문

- 강현국, 「현대시에나타난 바다 연구-정지용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문학
학과 언어』 4집, 1983년, 133~161쪽.
권정우, 「정지용의 바다시편과 산시편의 연속성 연구」, 『비교한국학』12
집, 2004, 77~99쪽.
김동환, 「김동리 소설의 상상력 연구 음양오행사상의 시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99쪽.
김정우, 「정지용의 시 ‘바다’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국어교육』제110호,
2003, 503~534쪽.
김 훈, 「정지용 시의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
184쪽.
남기혁, 「정지용 초기시의 ‘보는’ 주체와 시선(視線)의 문제-식민지적 근

- 대와 시선의 계보학(2)-, 『한국현대문학연구』제26집, 2008, 161~201쪽.
- 박정석, 「정지용 시의 공간의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27쪽.
- 백운복, 「정지용의 '바다' 시 연구」, 『서강어문』5집, 1985, 503~534쪽.
- 신진, 「정지용 시의 색채 이미지 고찰 -음양오행을 통한 原型研究試論-」,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제6집, 1982, 21~42쪽.
- 오탁번, 「지용시의 소재」, 『현대문학산고』, 고대출판부, 1976, 120쪽.
- 유종호, 「시는언어로빛는다」, 『문학의즐거움』, 민음사, 1995, 128~129쪽.
- 이정은, 「정지용시의 이미지연구」, 성균관교대, 석사학위논문, 2007, 1~125쪽.
- 이길연, 「정지용의 '바다'시편에 나타난 기하학적 상상력」, 『우리어문연구』25집, 2005, 197~217쪽.
- 이승훈, 「정지용 연구」, 『람프의 시학』, 새문사, 1988, 125~128쪽.
- 이정재, 「陰陽五行論의 형성과 이의 응용연구」, 『한국문화연구』제7집, 2003, 175~200쪽.
- 장동순, 「五行이론의 科學性」, 『의림』 262, 2000, 30~175쪽.
- 정효구, 「정지용의 시 '향수'와 음의 상상력」, 『한국시학연구』제19호, 2007, 239~269쪽.
- 조선숙,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본 이상의 소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67쪽.
- 최승호, 「정지용 자연시의 은유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제1호, 1998, 373~399쪽.
- 허치범, 「정지용과 김기림의 '바다' 시 비교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53쪽.

<Abstract>

Imagination of Water Represented in Poetry
Series 'Ocean' by Jeong Ji-Yong

Lee, Jong-Ok

This piece of writing began its discussion as focusing on an idea of Yin-Yang Five Elements (陰陽五行) that form a foundation of Orientalism. The reason for such discussi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oriental discussions about competitions to explain characteristics of poetry by Jeong Ji-Yong although they are important as much as to be expressed through poetry because its is concentrated on western ideas or theories. If political factors rather than art were applied in the birth process of Modernism poetry as Jeong Ji-Yong speaks, then the meaning of Modernism poetry in his work has no option but to be weakened. Literary works are the fruits of a society where the writer was born. This paper discussed about poetry series 'Ocean' by Jeong Ji-Yong in the Yin-Yang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perspective that is deeply inherited in culture, tradition, and idea of a society where the writer was born. The Yin-Yang Five Elements perspective an orientalism art theory that aims moderation of emotion, but it has significance as being faithful to poetics of Jeong Ji-Yong in connection with 'passionate on the inside but cool on the outside. If discussions based on western ideas or theories show a fresh sense and a pictorial image then discussions based on oriental ideas reveal the inner world of the writer, in other words philosophy, that is

hidden under the work. Imagination of water expressed in poetry series 'Ocean' of Jeong Ji-Yong allows to look into true nature of ontological agony inherent in his inner world.

As a result of discussing poetry series 'Ocean' by Jeong Ji-Yong, the key of imagination of water in poetry series 'Ocean' is that 'shade become light and light becomes shade'. I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Yin-Yang Five Elements (陰陽五行) and also circulativity of water (水). What the poet wanted to speak was possibility of revival, hope, that is involved in the image of liveliness preservation or the image of waiting appeared in 'ocean'. Imagination of water presented in poetry series 'Ocean' displayed Jeong Ji-Yong's perception on reality underlying in delineative pictorialization or corresponding measures against reality by emphasizing revival of life, which is hope, that penetrates the whole poetry series. It is important that it suggested hope thorough inevitability of life revival even through strong perception on reality as Manhae, Sanghwa, and Yuxsa is not revealed on the outside because the narrator's eyes are facing the inner side. Imagination appeared in poetry series 'Ocean' is spread in the middle of process of ontological anguish, and peace of existence is an inescapable consequence. This shows the inner world of Jeong Ji-Yong was reforming as a main agent of life to enjoy an ontological sense of security. In addition, internal agony in poetry series 'Ocean' became a shortcut to step forward to the following mountain poetry. Space has been moved to a 'mountain' to the 'ocean', but it essentially shares same idea. Lastly, this writing hopes that analysis on poetry 'Ocean' can imply context with the latter poetries or become an opportunity to expand understanding on the path of

Jeong Ji-Yong's poetries.

Key Words : Imagination of water (水), Yin-Yang Five Elements,
liveliness preservation, waiting, revival of life

■ 논문접수 : 2011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11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1년 12월 12일